

‘행정구역은 강진... 생활권은 장흥’ 강진 석동마을

“모든게 불편... 장흥 편입 왜 안 됩니까”

상수도 보급 안돼 우물물 사용·마을 회관도 없어

지역 이기주의에 郡간 경계조정 의견 반영 안돼

강진군과 장흥군 경계에 자리한 한 마을주민들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서로 달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강진군 군동면 운소리 석동(일명 자리골)마을은 군 소재지와 20km, 군 동면 소재지와 8km여 떨어져 있는 반면 장흥읍과는 4km 거리에 불과하다. 본래 이 마을은 400~500여m 떨어진 인근 장흥읍 석동마을(아래 석동)과 한 마을였으나 정부수립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장흥과 강진의 경계선이 만들어지면서 두 마을로 나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5가구 31명의

마을주민들은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 진료, 사적인 계모임까지도 장흥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 군 소재지는 행정이나 농협 민원시에만 왕래할 뿐이다.

이 마을은 전화·전기 공급은 물론 학교(학교) 관할구역이 장흥으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실제 ‘장흥군 석동’이라고 불려 오고 있다.

택시를 탈 경우 택시 기사에게 ‘석동 갑시다’ 하면 “아래 석동”이요, ‘위 석동’이요” 라고 반문할 정도로 이곳 주민들간에는 강진과 장흥이라는 지

역색이 전혀 없는 ‘한 동네’로 통하고 있다.

군동면 소재지에서 이 마을로 가는 도로는 농로와 산길로 겨우 경운기와 오토바이만이 다닐 수 있다.

게다가 강진지역 대부분 마을에 상수도물이 보급되고 있지만 이 마을 주민들은 아직 우물(샘)물에 의존하고 있다.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마을회관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법규상 ‘시·군·구간 경계조정’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역이기주의 논리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임병호 강진군 군동면장은 “석동마을은 지리적·물적·인적 교류가 장흥 생활권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현 지자체 제도의 모순과 행정상 행정구역 관할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 석동은 1912년에 발간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의하면 장흥군 부서면의 12개 마을 가운데 한 마을로 기록돼 있으나, 이후 장흥과 강진의 경계선이 만들어지면서 군동면 운소리 신기마을에 속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어린이 날인 5일 가족과 함께 담양 축북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대나무 사이길을 걷고 있다. 대나무 축제기간과 맞물려 이날 축북원에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담양군 제공)

담양 대나무축제 91만명 방문 ‘대박’

바가지요금 없애고 ‘장소마케팅’에 관광객 호응

각종 체험프로그램 대폭 확대...경제효과 318억

담양군은 지난 1~5일 열린 ‘제 12회 담양 대나무축제’에 관광객 91만여명이 방문해 318억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담양군은 천안함 침몰과 구제역 확산 등으로 국가적 침체 분위기 속에 지난해에 비해 축제 기간이 하루 단축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둔 성과여서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군은 성공비결 요인으로 축제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각종 공연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대나무박람회와 비롯한 전국 축제공대전·대나무 웰빙 건강식품관 운영 등 대나무와 연관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늘린 것을 꼽았다.

또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전남 도립대·관방천 입구·군청·담양천 고수부지 등을 활용,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함께 관내 12개 읍·면 부녀회를 중심으로 향토음식점을 운영

해 바가지요금 횡포 등을 없애고, 축북원~축남 문화체험마을~관방계림~담양천을 잇는 장소마케팅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대나무 축제 홈페이지는 서버 용량을 1G(기가)에서 20기가로 늘렸는데도 접속자 폭주로 한때 다운되기도 해 다시 28기가로 늘리기도 했다.

주요한 군수 권한대행은 “지역 대표브랜드인 대나무를 중심으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시키는 축제를 꾸리는데 노력했다”며 “이번 축제의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대나무축제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문화와 전통 숨쉬는 농촌’ 조성 탄력

강진군-문체부-농림부 6일 MOU 체결

강진군이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문화·전통사업을 펼친다.

강진군과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농촌’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 문체부와 농림부 양 부처장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인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농촌 사업’은 지난달 강진군 병영면 도동마을과 경북 영덕군 등 전국에서 2곳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각각 추진하고 있는 문광부의 문화사업과 농식품부의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양부처간 협의해 추진됐다.

이날 MOU 체결에 따라 병영면 도동마을은 최대 4억원과 작은 도서관에 3500만원을 지원받아 관광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펼치게 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월출산 산수유지컬 ‘영암 아리랑’ 조성 탄력

저수지에 수상무대 만든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영암 월출산 자락에 들어설 산수(山水) 뮤지컬 ‘영암 아리랑’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조감도>

영암군은 “최근 열린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 심의결과 산수 뮤지컬 ‘영암아리랑’ 공연장 사업에정 부지인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키로 심의결과 사업추진에 순환이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사자저수지는 월출산 국립공원구역안에 위치해 국립공원구역

해제문제가 가장 큰 당면과제였다. 영암군은 월출산 주변 관광개발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월출산 기간랜드 조성 ▲월출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산수유지컬 ‘영암아리랑’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할 산수유지컬 ‘영암 아리랑’은 사자저수지에 월출산 사자봉의 위용과 자연풍광을 무대로 세계적인 기술력의 특수조명과 특수음향 시설을 갖춘 무대를 설치해 자연훼손이 없는 무대공연 시설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민을 출연자로 선발해 출연자 교육과 전문 예술인 양성을 위한 ‘아리랑공연 예술학교’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공연작품은 전통문화를 미래 농촌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구상하고 농촌관광의 특성을 이해한 체험과 감성의 마케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으로 각광받는 문화예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10 F1 영암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2012 여수해안엑스포 ▲2015 광주 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 와 연계한 문화산업의 시너지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화순서 ‘사랑의 느티나무 마을장터’

어린이에 재활용 의식 높이고 환경·문화체험교육

어린이들의 재활용 의식을 높이고 환경교육을 위한 문화체험마당 ‘사랑의 느티나무 마을장터’가 지난 5일 화순 광덕지구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교육문화공동체 ‘느티나무’(공동대표 이현권·정찬명)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300여명의 어린이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마을장터’ 개장 선포식을 시작으로 마을장터·간판 콘테스트·전래놀이 경연대회·야기

캠프 등 순으로 진행됐다. ‘느티나무’는 이날 행사 관매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도서구입 등 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느티나무’ 김은희 간사는 “이번 마을장터는 어린이의 재활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쓰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거나 바꿔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방장산 자연휴양림

어버이날 무료개장

산림청 산하 국립 자연휴양림관리소 방장산자연휴양림은 어버이날인 8일 만 60세 이상 어버이와 함께 휴양림을 방문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한다.

방장산자연휴양림은 이날 가족이 함께 푸른 숲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숲해설과 목공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 만 60세 이상 어버이와 함께 입장하는 동반 가족에게는 입장료 및 주차료가 면제된다. /중부취재본부=김홍호기자 yongho@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 폭발이다. 그동안 기대가 크면 실패가 크듯 큰 기대를 걸고 이것저것을 고가로 사서 사용해 보았으나 사용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여 아까운 돈만 날려 버리고 허탈감 속에서 불신임만 쌓여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큰놈을 보고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듯이 혹시나 하고 이번에도 반신반의하여 사용해 보았더니 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사용중시 불끈 일어나서 장시간 지속되며 끈끈이 생시인 기 청춘으로 돌아간 듯 뿌듯함을 느낀다. (발기부전 개선을 위한 기구 실용신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 하여도 피부같은 촉감에

달 핑 이 모양같은 실리콘이 쳐올 보 는 것이 며 주사 나 약도 아니고 반지 같은 링이나 진공 펌프도 아닌 신제품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장 없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타나게 날개 뚝쳐 나가고 있다. *기구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흰색의 끈, 파워마카100% 분말로 대신하면 좋습니다. (30일분 90,000 60일분 150,000) * 구매시 **환나경서적**이 없는 것은 유사품입니다. **99,000원**

1588-4102
010-8558-4114, 010-8952-4114

농협 301-0036-8883-71 예금주:글로볼 핫나경 www.핫나경.kr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이의 최대의 고민해결!

중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른... 분들의 “기”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감각 불발만만 마그마원석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은 60% 大, 中, 小 10단계조절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4년만의 신비 그린머드(헤트나이트)가 만들어 내는 3개월의 기적!!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시나요? 스토레스가 심하시다고요? 모발이 얇아지고, 소갈머리, 주머머리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제 “단아미인”이 해결해 드립니다. 탈모방지 및 육포전용 헤어제품인 단아미인은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청 허가제품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 진다.

1577-4101
010-5296-4114, 010-8952-4114

농협 569-12-034626 예금주:베베자 www.핫나경.kr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5.27.(목) ~ 2010.06.01.(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구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공정평가사,경영평가사,공정평가사,건축사,건설기술사,역사문화,자산보존관리사,중
학·석사 취득자	4년제 대학 경영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건설경제학 석·박사 취득자는 사별
실무경력자	국가·지방,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건설업 관련 부서, 개발인력 관련 부서 근무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 원 장이명규 교수 062-670-2421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문의/전화 www.gred.kr